



동방경제포럼의뉴스

V. 푸틴은 동방경제 포럼 중에 몽고 대통령 K. 바툴가 몽골 대통령과 회담을 수행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합의는 러 연방 대통령과 몽골의 리더 사이에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실무회담에서 달성된 것이다. (리아 '노보스티')

러시아와 싱가포르는 동방경제포럼을 포함하여 국제 행사들의 범위 안에서 협력을 활성화할 것을 기획한다.

이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A. 코바코프 고문과 러시아연방 주재 림 켝 후아 싱가포르 대사 사이의 회담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타스)

연해주는 동방경제포럼에서 2천억 루블어치 협약 40건을 서명할 것을 기획한다.
'Guangda'

중국건설회사와 함께 실현하기가 기획되는 "프리모리에-1호' 및 '프리모리에-2호' 국제 교통화랑을 건설할 프로젝트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타스)

동방경제포럼에서 '슬라브트란스-세르비스'사는 연해주에서의 극동 농업 물류 허브 프로젝트를 소개할 것이다.

허브는 극동에서 가장 크며 수용량이 7만톤 정도 되는 냉장-창고단지 그리고 항만과 철도 인프라에 접근이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포함할 것이다. 투자액은 100 억루블이상이다. ('인테르팍스')

동방경제포럼에서는 극동개발 및 하이테크도입 재단의 금융에 관한 협약서가 조인될 것이다.

재단은 유망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부자금을 제공할 것이며 고급기술제품생산의 확장 및 현대화 외국 기술이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에 융자할 것이다. 재단의 목표자금은 100억 루블이 될 것이다.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지)

극동뉴스

블라디보스토크 어항은 생선 4만톤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단지를 건설할 것이다. 프로젝트에 대한 총 투자액은 10억 루블 정도 되며 창출될 신규 일자리는 100개 정도 될 것이다. (타스)

2017년8월18일부터 24일까지 극동개발공사는 7가지 큰 러시아 및 외국 회사들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레지던트 회사 자격을 제공할 데 대한 협약들을 체결했다. 이들의 프로젝트들 중에는 농업단지 구축, 주택건물 건설, 'Harley-Davidson'의 대리점 개설 등이 있다. ('프리모르스카야 가제타'지)

현재 하바로프스크 지방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들에서는 총 투자액이 410억 루블을 넘는 35개의 회사들이 레지던트 회사 인증서를 받았다.

하바로프스크 지방 V. 쓰포르트 주지사는 이등 중의 11개의 회사들이 생산을 이미 가동함으로써 50억 루블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고 65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보스톡-미디어'통신사)

극동개발부 언론 담당 서비스는 2017년 말까지 '극동 헥타르'를 수석하는 체계가 현대화될 것을 밝혔다.

우선 'НаДальнийВосток.РФ' 연방정보시스템의 범위 안에서 전권기관들과 국가 연방 등기청 사이에 전자 데이터를 교환할 가능성이 실현될 것이다. (리아 '노보스티')

참고정보:

동방경제포럼-2017의주최자인'로스콩그레스' 재단은회의,
전시회등행사의최대주최단체이다.

'로스콩그레스' 재단은2007년도에회의, 전시회등사회행사를개최하며수행함으로써
러시아이미지를강화하고경제적잠재력을발전하는데기여할목적으로설립된것이다.
재단은이행사들의내용부분을형성시키며, 단체들과회사들에전문적컨설팅및정보지원
을제공하며러시아및전세계경제적일정의제문제를전면적으로연구하며분석하며조명
하고있다.

오늘재단의연간일정은몬테비데오부터블라디보스토크까지개최되고있는행사들을포
함함으로써한마당에서세계적인비즈니스리더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정권대표자들을
모으며새로운구상과프로젝트를논의하며추진하기위해서최선의조건을마련하며사회
적기업과자선프로젝트를형성시키는데기여할수있게해주는것이다.